

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보도자료 http://www.mke.go.kr http://www.kats.go.kr
'11년 7월 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김동호 과장, 박용균 연구사 (509-7231)	

법정 계량기 검정, 기업 자율로 실시

- 기표원, (주)카스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-

-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법정 계량기 검정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(주)카스를 전기식 지시저울의 자체검정사업자로 7월 6일 지정·공고하였다
- (주)카스는 국내 최대의 저울 생산업체로서 1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되었다.

자체검정사업자 제도란? : 계량기(저울 등)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 시 검정 필증을 부착하는 것을 검정이라 하며,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되면 기업 스스로 검사한 후  마크와 자체검정 표시를 부착하게 됨



- 저울, 수도미터 등의 법정계량기는 정밀도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생산 제품은 외부의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야 하지만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되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다.
- 자체검정사업자는 검정 인력·설비,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검사 기관인지 여부와 최근 2년간 불합격률(1천개 중 1개 이하) 등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.
- (주)카스는 유럽의 자율검정기관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공인 검사·교정 기관으로도 활동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으며, 이번 지정을 계기로 자체검정사업자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제조사업자 지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자체검정사업자는 검정비용이 절감되고 검정기간이 단축되는 등 비용절감과 함께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대효과가 있다.
- 기술표준원은 자체검정사업자 제도가 기업규제 완화 및 비용 절감, 생산성 향상 등에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자체 검정 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